

월세도 세액 공제...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최대 90만원

원룸·고시원 등 포함... 상가용 오피스텔 안돼

과거 놓친 것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경우 최대 9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이 다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형태별로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은 월세 세

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역시 보증금과 함께 일정 부분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용도가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



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도 없어도 가능하다.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과거에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김민정기자



'농할갑시다' 행사, 계란·무·배추 등 20% 할인

대형마트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배추와 무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엘포인트 회원이 롯데, 신한, 현대 등 7개 카드사 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 이번 행사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배추, 무를 할인 품목으로 정해 실질적인 가격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

산업연구원 "반도체·바이오 등 1분기 제조업 경기 개선 기대감 ↑"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개선 전망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가 반도체,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제조업체 1009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시장 전망은 92로 전분기보다 4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과 수출 전망도 각각 4p, 6p 늘어난

94.97로 집계됐다.

시장과 매출 BSI가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고 해석한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본다.

재고 전망은 99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자금 사정 전망은 90으로 4p 상승했다. 설비투자자고용 전망은 각각 2p, 4p 오른 99, 101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 전망을 보면 전체

13개 업종 가운데 정유(101)와 바이오·헬스(101) 2개 업종이 BSI 100을 넘겼다. 반도체 BSI도 100을 기록했다.

이외에 디스플레이(97), 이차전지(97), 일반기계(90), 철강(88), 조선(82) 업종에서 매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화학(95), 자동차(93), 무선통신기기(88), 가전(88), 섬유(66) 업종에서는 당분간 반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유형별 매출 전망은 ICT(97) 부문이 전분기 대비 8p 상승하며 으뜸세를 이어갔다.

최이슬기자

우체국쇼핑, 설맛이 최대 40% 할인한다

8000여 특산품·생필품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8일부터 2월5일까지 전국의 특산물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우체국쇼핑'2021년 설 선물대전'을 연다.

우체국쇼핑은 설 명절을 맞아 인기 상품인 곶감, 과일세트, 한과, 굴비, 건해산물 세트 등 특산물과 생활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인기상품 중 한우(등심 2.4kg)는 30% 할인된 16만5000원에, 굴비(10미)는 35% 할인된 9만7500원에, 곶감(건식 2kg)은 30% 할인된 4만9700원에 판매한다.

고객들이 명절선물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전 고객 대상으로 총 1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팩을 제공하며, 알뜰하



게 명절 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화·수요일 10시 한정수량 특가 이벤트인 '타임딜'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구매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우체국쇼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해 '힘내라 대한민국'특별기획전 등을 열어 약 200억 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구매여건이 취약한 읍·면지역 우체국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기도 했다.

서선옥기자

삼성전자 사장이 말하는 '갤럭시S21'

“디자인·카메라·성능 모두 갖춰”

노태문 사장 등 무선사업부 임원 인터뷰 게재대

“다양한 카테고리 S펜의 경험 확장해 나갈 것”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 S21 시리즈의 큰 특징은 새로운 디자인, 전문가급 카메라와 비디오,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췄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문 사장은 17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재된 갤럭시S21 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1 시리즈를 선보였다.

노태문 사장은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플래그십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자부한다”라며 “사전 준비 과정에서 이통사와 파트너들로부터 새로운 디자인, 프로급 카메라, 매끄러운 통합 사용 경험과 성능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갤럭시 S21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 생태계

에 포함된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스마트 태그 같은 기기가 2021년 업계의 성장을 이끌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전략에 대해서는 “최우선 목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모바일 경험과 혜택을 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더 가치 있는 경험을 만들고 사용자의 일상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모바일의 경계를 넘어 스마트 홈과 커넥티드 카까지 더 확장된 생태계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S21 울트라 모델을 비롯해 ‘S펜’의 경험을 다양한 기기로 확장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노 사장은 “삼성이 물 흐르듯 끊임 없는 새로운 모바일 경험 혁신에 매진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일상을 편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배려 때문”이라며 “이에 갤럭시 S21 울트라로 S펜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에 과감히 도전했다”고 밝혔다.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3D 월드+퓨리 월드’ 예약도 세븐일레븐

할인가 5만9800원·에코백 증정

홈 오락실·설 선물 수요 겨냥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설을 앞두고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 슈퍼 마리오 3D 월드 + 퓨리 월드’를 2월1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예약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정가가 6만4800원을 5만9800원으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슈퍼 마리오’ 캐릭터 에코백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마리오 카드 라이브: 홈서킷’의 ‘마리오 세트’ ‘루이지 세트’를 각 10만9800원, 닌텐도 스위치를 36만원에 판매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콕’이 일상화하면서 ‘홈 오락실’이 인기를 누리는 데 착안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도보다 9%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세븐일레븐에서도 오락 관련 상품 매출이 증가했다.

‘구글 기프트 카드’ 매출은 전년 대비 32.4% 폭증했다. 주택가 상권에 서는 완구가 27.7%, 토이 캔디류가 16.2% 더 팔렸다. 대표적인 주전부리



간식은 스낵 매출도 14.5% 늘었다.

슈퍼 마리오 3D 월드 + 퓨리 월드는 일본의 세계적인 인기 게임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탄생 35주년을 맞아 해 출시하는 게임이다. 코스, 캐릭터 등이 추가된다. 닌텐도 스위치 버전은 2월12일 국내에 정식 발매된다. 1인은 물론 4명까지 멀티 플레이로 즐길 수 있다.

이우리 세븐일레븐 담당 MD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 두기로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아이템들이 각광받고 있다”며 “닌텐도 게임은 세대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용 게임이다. 자녀나 지인 신년, 설 선물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고 권했다.

신봉우기자